



空士總同窓會報

發行人：姜敏秀

編輯人：李宰律

(住所) : 서울特別市 銅雀區 大方洞 358-1番地 ☎ 156-808, (電話) : 02-823-1091, 810-6792(FAX) : 02-823-1092,

E-Mail : airfa04@hanmir.com
HOMEPAGE : www.afa.ac.kr

新 年 辭



希望찬 壬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會員 여러분과 온 家族이 平安하시고 모든 일 亨通하시기를 優先 기원 드립니다.

昨年 7월 1일부터 會長에 就任한 지 벌써 半年의 세월이 지나갔으나 總同窓會의 發展을 위하여 뚜렷한 成果없이 귀중한 시간만 허비한 것이 아닌가 自省하며 悚懼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會員 여러분의 積極적인 參與와 協助에 힘입어, 미약하나마 同窓會의 발전과 內實을 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努力을 기울여 왔습

니다.

우선 總同窓會 基金의 安全管理을 爲한 조치와 會員들의 自發적인 平生會費 納付를 통한 基金의 充實, 9次年度 運營基金의 充分한 확보, 各期生別 會員 現況 정리 및 활동사항의 積極적인 홍보 등, 모든 會員들이 同窓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언제나 強調되고 있습니다만, 總同窓會가 眞실공히 同窓會로 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爲해 必須의인 要件은, 基金의 확보 및 3사체전支援 등 母軍과 母校에 대한 支援 強化 등 名分있는 活動과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반약한 基金사정으로 인하여 積極적인 사업추진 및 活動에 制限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오로지 基金의 擴充에 全heart全力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事情은 앞으로 5年 내지 10年이 경과되 어야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空士 總同窓會가 그 位相에 맞는 役割과 機能을 다 할 수

있는 時期가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會員 여러분의 積極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母校가 創設된 지 半世紀가 넘는 이 時點에서 果然 이 같은 세월의 흐름에 걸 맞는 同窓會의 位相이 確立되어 있는가?를 다 함께 되새겨 보며, 새해에는 總同窓會 發展에 획기적인 成果를 거두는 한해가 될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공군에서 靑春과 情熱을 다 바쳤던 先輩들은 後輩들이 마 음을 놓고 任務에 專念할 수 있도록 物心兩面으로 支援과 激勵을 아끼지 않으며, 현역 후배들은 이 같은 先輩들의 기대에 副應하 도록 必勝의 空軍, 더욱 자랑 스러운 空軍育成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갈 때 공사 同窓會의 位相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壬午年 새해 희원 여러분의 健勝과 家庭의 平安, 그리고 뜻하는 모든 일이 成 就하시기를 眞心으로 祈願드 립니다.

2002년 元旦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
會長 姜敏秀

차 례

총동창회 소식(2~4면)

- 37기사관 입교 50주년 기념 행사
- 인간승리 1급장애인 이성재
- 공지사항 및 협조사항

모군 소식(5~7면)

- 공군 지휘관 회의
- 청마부대 창설식 거행
- 블랙이글

모교 소식(8면)

- 공사명예졸업식(이만섭)
- 신입생 합격

회원기고(9면)

- 이만섭 명예졸업식(연설)
- 전투조종사와 애국심 (박종권)

회비 및 찬조금(10~11면)

謹賀新年



總 同 窓 會 消 息

作戰司令部 訪問

總同窓會 姜敏秀 會長과 임원 일행은 지난 11월 6일 오전 총동창회장 취임 인사차 作戰司令部 金大郁 사령관을 禮訪하여 참모들과 더불어 總同窓會 발전과 활성화에 관해 意見 交換을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金 司令官은 總同窓會의 활동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사령부 산하 동창회원들에게 동창회 활동에 積極的인 관심과 協助를 贊助하겠다고 약속하고 일행을 따뜻이 영접해 주었으며 사령부 참모들과 함께 오찬을 하면서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기대 없는 意見을 나누었다.



陸海空 士官學校 總同窓會長團 모임

陸士 總同窓會長(회장 박세직) 주관으로 2001년 10월 8일 한국의 집(서울 중구 필동)에서 3군의 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단과 각군사관학교 校長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士 體典이 3軍의 和合과 親睦의 體典으로 더욱 發展

되도록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모임을 마치고 3사 체전을 觀戰하였다. 空士 總同窓會에서는 會長(姜敏秀) 副會長(金相泰 韓光熙) 監事(李基鳳 鄭恩鎬) 事務總長(李宰律)이 참석하여 相互 親睦을 도모하였다.



1期士官 活動

1期士官(鴻友會 會長 金英煥)은 2001년도 정기총회 및 연말 송년회 모임을 2001년 12월 19일(수) 용산 용사의집에서 가졌다. 이 자

리에서 2001년도 회무 보고와 2002년 사업계획, 그리고 새로운 회장단을 선임하였다(회장·총무 최규순).

3期士官 入校 50주년 기념행사

3期士官(三鼎會 회장 孔應善)은 공사 입교 50주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월 1일 오전에는 공군 제20 비행단을 방문하여 장병을 격려하고 오후에는 국회의장(이만섭)을 예방하여 국회 의사당을 견학하였으며

◆ 11월 3일에는 부부동반(해외거주 회원포함) 모교를 방문하여 모교가 주관하는 3期士官 입교 5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3期士官으로 입교하여 졸업 10개월을 넘겨두고 본의 아니게 퇴교

하게 된 이만섭 국회의장을 비롯한 2명에 대하여 朱昌成 교장(16기)으로부터 50년만에 명예졸업장을 받았으며 기념식 후 생도들로부터 사열을 받았다.

행사가 끝난 후 3期士官은 1,000만 원을 모교 발전을 위해 기증하였으며 교장은 全 3期士官에게 입교 50주년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 11월 5일에는 1박2일 계획으로 입교50주년을 기념하고 또한 회원 친목과 단합을 위하여 부부동반 동해안지역을 관광하였다.



5期士官 活動

5期士官(新星會 會長 崔泓善)은 2001년도 정기총회 및 연말 송년회 모임을 2001년 12월 17일(월) 용산 웨딩타운하니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1년간의 會務 보고와 2002년 운영계획, 그리고 2003년

공사입교 50주년 행사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해외동기생을 포함하여 전기생 부부 동반하여 성대하게 할 것을 의결하였다.

바둑모임변경 : 매월 2,4주 월요일 저스민(2호선 강남역)

8期士官 단합회

8期士官(八進會 會長 金相緣)은 동기생 단합회를 위해 지난 11월 9일, 10일 2일간 서해안 지역을 관광하였다. 첫날은 현충사, 서산현대 A.B지구 방조제, 간월도 등을 답사하였으며 이튿날에는 운봉길 의사 기념관(생가포함), 수덕사,

해미읍성 등을 관광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2001년을 보내는 송년회 겸 정기총회를 12월 13일 제주도 일식집(밤베동)에서 가졌으며, 이 모임에서 기생회장단의 연임을 결하였다(회장 김삼목, 부회장 김도식, 총무 백상희).

9期士官 活動

9期士官(銀河會 會長 姜敏秀)은 지난 9월 27일 1박2일 계획으로 동해안 지역 문화유적(오죽헌, 낙산사, 신홍사 등)을 부부 동반하여 답사하였다. 귀경 길에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이승복 반공기념관을 다녀왔다. 이번 동해안지역 문화유적 답사는 총동창회 운영

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동기생 간 친목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2001년을 보내는 송년회를 12월 13일 용산 웨딩타운 하니에서 가졌는데, 이 모임에서 2002년 동기생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다같이 노력하기로 하였다.

(2면에서 이음)

9次年度 理事陣

2001. 12. 25. 기준

기수	회 장	부 회 장	총 무	기수	회 장	부 회 장	총 무
1	최규순	최규순	16 박성국	김종환			
2	유수호	변선기	오호석	17 이한호	김용수	유연준	
3	김종준	정규혁	정규혁	18 정원태	최석상		
4	김환중	안우일	김석용	19 김명림	윤정재		
5	최홍선	이병직	20 김성두	허원욱			
6	조영철	김명호	강용수	21 마순복			
7	곽영달	김영곤	22 김수준				
8	김삼목	김도식	23 윤차영	우무진	장창연		
9	강민수	함종우	이재복	24 한성주	조현규	유상양	
10	김병태	홍동식	25 한영철	김대희	정삼용		
11	임지호	정 훈	26 박기순	박희영			
12	김영식	김태규, 이병철, 전대우	김영웅	27 이광재	고복홍	김 인	
13	이강광	이병길	28 윤 우	김주연	김영철		
14	이역수	정성규	29 이철호	박승민			
15	박오상	염익준					

※ 일부理事陣 변경되었음.

出版記念會

동명대학교 白奉鍾 교수(공사 9기)는 지난 10월 27일(토) 오후 6시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전공 관련 교수, 학자, 선후배, 동료, 그리고 친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現代 地球村外交史>의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가졌다. 특히 공사동기생이 많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백교수는 연역시절 정치학박사로서 공군대학에서 15여 년간 안보외교분야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을 갖고 정열적으로 강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퇴역 후에도 동의대학교에서 學長 및 研究所長을 역임하면서 15년간 외교사를 강의하고 있다. 그러던 중 이번에 그간의 깊은 연구와 풍부한 감당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위 저서를 출판하게 되었는데 이 저서는 외교사를 전공하는 학도들뿐만 아니라 地球化 時代를 살아가고 있는 교양인들에게도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라고 높이 評價되고 있다.

<< 주요약력 >>

- 1961년 공사졸업(공사 9기)
- 1981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 1985년 공군대학 교수부장
- 1986년 현 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1993년 동의대학교 법정대학장
- 1990년~현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人間勝利 1급장애인 李成幸(공사25기)

('파일럿 꿈' 접었지만 '봉사자의 꿈' 날개펴다)

- '79년 좌절된 삶 : 공군중위 때 척추다쳐 7번 수술. 휠체어 신세.
- '82년 미국서 재기 : 신부의 헌신적 뒷바라지로 MBA, CPA 따내...
- '90년 한국서 새삼 : 고국의 하늘이 그리워 귀국, 장애인을 돕기로.

"몸이 허락하는 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지요." 휠체어 없이는 1m도 움직이기 힘든 1급 장애인인 대양산업 이성재(47) 전부는 연말이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분주해진다고 했다. 다른 어느 때보다 도움이 필요한 같은 처지의 장애인과 불우이웃들을 돕느라 이씨 부부 모두가 봉사활동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22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가 있기 몇 시간 전까지 하늘을 날고, '한국 최고의 파일럿(탑간)'을 꿈꾸던 젊은 전투조종사였다. '73년 공군사관학교(25기)에 입교한 그는 '79년 10월 10일 전투비행단(16비) 근무 중 차량 전복 사고(야간)로 척추신경을 다쳤다. 이씨는 2년 여의 투병 생활 중 7번의 대수술을 받았지만 한번 없어진 척추신경은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더이상 푸른 창공을 날 수 없다는 생각에 차라리 비행기와 함께 떨어져 죽고 싶다"며 좌절하던 이씨를 재활의 길로 이끌고 오랜 투병에서 이긴 것은 공사선후배 및 동기생의 물심양면의 격려 뿐 아니라 고교시절부터 사귀어온 부인 이명진(46)씨의 헌신적 사랑이었다. 당시 예비신부였던 부인은 2년 여 동안 병상을 지키며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설득했다.

부인 이씨는 남편에게 "당신은 몸이 자유롭지 않지만 정신은 건강하다"며, 장애인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미국에 유학 갈 것을 권유했다. 이화여대(간호대)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하던 부인 이씨가 이미 불구가 된 사람과 결혼하

고 그를 따라 미국 길에 오르려 하자 주위에서는 모두 만류했다고 한다. 하지만 누구도 이들의 사랑을 막지는 못했다. 미국으로 간 이씨는 유학 5년만에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사회학·경제학 학사학위,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부인 이씨는 남편 학비를 대기 위해 모빌과 아이스크림가게 등에서 온갖 허드렛일을 다했다고 한다. 텍사스 대학시절 장시간 앉아 있었던 관계로 엉덩이가 썩어 들어가 사경을 헤매는 경험을 한 적도 있었다. 염증이 심해 학교 병원을 찾으니 강제 입원 조치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학교 수업은 물론이고 일주일에 4시간씩 학부생의 강의도 맡고 있었기에 도저히 입원이 불가능한 일이라 물레 도망쳐 나온 적도 있다.

이들 부부는 "지금쯤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언젠가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남겠다"고 다짐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냈다. '87년 9월 미국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 LA의 한 회계법인에서 일하던 이씨는 지난 '90년 "고국의 하늘과 사람들이 미치도록 그리워서" 귀국을 결심했다. 귀국 후 이씨 부부는 미국서 살 때 다짐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장애인과 불우이웃'을 돕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내 골지의 제약회사 이사를 거쳐, 에너지업계의 중견 기업인 대양산업의 전무로 재직 중인 이씨는 "어쩔 수 없이 접어야 했던 파일럿의 꿈이 아쉽지만, 뜻밖의 사고로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돼 오히려 내 인생이 더욱 풍부해졌다"며 환각 웃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비행단을 방문하여 이제까지 격려하여 준 선후배 및 동기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또 하나의 즐거움으로 여기며 활기차고 있다.



공지사항 및 협조사항

1. 이사회 운영

총동창회 8차년도까지 이사회 운영은 1기선배로부터 총동창회 운영기수에 20기의 기를 더한 기입원, 회장, 기에서 선임된 이사(4명)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9차년도부터는 각 기 이사(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합니다. 각 기 이사회는 9차년도부터 기별분담금으로 명칭과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1기 선배는 면제, 총동창회 운영을 맡았던 기(2~8기)는 40만원, 그리고 나머지 기수는 (9~29기)는 60만원으로 정기총회에서 의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각기생 활동 현황통보

각 기생회의 행사 및 회원통정, 애·경사, 주소변동 등을 연락바랍니다. 회원 순직시 총동창회 명의로 조화를 표의하도록 제도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일부 기생에서 연락이 되지 않아 조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꼭 연락바랍니다.

3. 해외거주 및 순직자 주소록 작성

공군본부(인참부)에서는 이제까지 생존한 국내의 공군 전역장교 명부를 발간 배포하여 회원들 간 애·경사와 회원간 연락 등으로 매우 편리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해외거주 예비역과 순직자의 주소록을 전역자 명부에 등재하여 순회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 기생회장(총무)께서는 주소록 확인하는 대로 총동창회 사무실이나 공본 인참부(인사관리처 예비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홈페이지 주소변경

지금까지 운영했던 공사 총동창회 홈페이지(www.kafapride.org)

가 12월 1일부터 공군사관학교(www.afa.ac.kr) 홈페이지 안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회원분들이 많이 방문하여 좋은 의견을 계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afapride.org는 고대석(40기) 회원이 총동창회의 지원 없이 자비로 운영해왔던 홈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총동창회를 위해 애쓰신 고대석 회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홈페이지는 '총동창회란', '변경 및 신청', '동문 찾기', '게시판', '기수별 홈페이지' 이렇게 6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총동창회 첫 화면에 있는 공지사항과 회보란은 동창회에서만 작성할 수 있지만, 경조사에는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총동창회란'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변경 및 신청'란에는 주소변경·전역신고·회원증·배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문 찾기'는 기수 또는 성명으로 동문을 찾을 수 있으며, '게시판'은 누구나 글 또는 자료들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기수별 홈페이지'는 인터넷상의 동기생회 사이트를 정리해 놓은 곳입니다.

5. 기금운영(총동창회)

총동창회의 기금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9차년도에 남부원 평생회비와 이차, 그리고 운영금 잔액을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사고시 전적으로 운영기수인 9기사관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6. 회비납부(평생회비 및 임원회비)

각 기 회장(총무)은 회원의 평생회비와 기별 분담금을 금년 내로 납부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평생회비 및 임원회비 표 참조).

(3면에서 아음)

7. 배지 신청

총동창회는 7차년도부터 매년 500개의 배지를 제작하여 왔으나 금년도에는 1,000개를 제작하여 3사체전 격려행사시 각 기생대표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예산 관계로 많은 양을 주지 못함을 이해하시고 배지가 필요하신 각 기생대표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예산 관계로 많은 양을 주지 못함을 이해하시고 배지가 필요하신 각 기생대표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예산 관계로 많은 양을 주지 못함을 이해하시고 배지가 필요하신 각 기생대표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8. 동창회보 원고

총동창회 회보는 연 4회 발간하고

있으며, 각 기생회의 활동사항과 회원의 소식지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며 많은 원고 협조를 바랍니다. 특히 군복부 혹은 전역 후 신상에 일어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보내주시면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9. 회원증 교부

현재 총동창회원 중 430여 명이 동창회 회원증을 교부받아 모교 출입과 체력단련장 이용에 많은 편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하여 많은 회원이 회원증을 교부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증을 교부받은 회원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였습니다.

학원

Table with 4 columns: Name, Date, Name, Date. Rows include 김종관(5기)의 장남 정태 11/11, 박원규(12기)의 차녀 정은 12/22, 윤석문(8기)의 차남 여승 11/24, 박영기(16기)의 장녀 정애 12/2, 정우신(8기)의 차남 승민 12/29, 강희관(17기)의 장남 형기 12/29

부임

Table with 4 columns: Name, Date, Name, Date. Rows include 한익만(1기) 9월 23일 별세, 박영제(5기) 11월 28일 별세, 유태원(1기) 11월 13일 모친상, 김부근(14기) 10월 4일 모친상, 백낙승(3기) 10월 6일 부인상, 최홍순(5기) 11월 18일 모친상, 최홍수(43기) 10월 5일 순직

- 동기생 주소록(라벨포함) 신청시 인쇄해 드리겠습니다.
- 에·결사시 연락하여 주시면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 회원 별서시 총동창회 명의로 弔花를 보내드리도록 하였습니다(각기 생회장(총무)께서는 총동창회에 연락바랍니다).
- 총동창회 弔旗 활용(회원 및 직계가족)을 권장합니다.

주소 변경

Table with 5 columns: No, Name, Address, Old No, New No. Lists address changes for members like 김창수, 이교안, 천영성, 유낙영, 이우영, 양옥선, 이정우, 김남수, 이환용, 유상신, 김상태, 서용택, 신윤철, 김광영, 김종선, 김진삼, 이종화, 우의인, 전광남, 전광성, 최양용, 홍강표, 이광영, 정왕림, 박홍식.

전역자 현황(2001년)

총 116명

2001. 12. 25. 기준

Table with 5 columns: No, Grade, Name, No, No. Lists graduates from grade 16 to 29.

Table with 5 columns: No, Grade, Name, No, No. Lists graduates from grade 29 to 36.

Table with 5 columns: No, Grade, Name, No, No. Lists graduates from grade 36 to 46.

母 · 軍 · 消 · 息

空軍 指揮官 會議(2001년)

- '2002 월드컵' 대비 完備한 領空防衛 任務完遂 強調
- '전략형 空軍力 建設'을 위한 主要戰力增強事業 適期 推進 決議

공군은 12월 17일(월) 오전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이억수(大將 李億秀) 공군참모총장 주재로 공군본부 참모, 대외부서 근무 장성, 독립 전대급 이상의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다사다난했던 2001년을 되돌아보고 2002년 새해를 맞이하는 공군 장병들의 각오를 다지기 위한 2001년 '공군 지휘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최근 안보정세, '01년 업무종합평가, '02년 주요 국방정책 추진방향 전파, '02년도 공군 운영 중점 및 분야별 주요추진 업무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군은 2001년 한 해 동안 ▲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입무수행 능력 제고 ▲ 정보화·과학화 공군력 건설 기반 확립 ▲ 효율적 자원관리를 통한 '경제적 운영' 등으로 내실 있는 입무성과를 달성하고 '전략형 공군력' 건설을 위한 토대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공군은 또 올해 '서울 에어쇼 2001', 'T-50 시제기 출고식', '6·25 50주년 공군 작전기념행사' 등 국가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여성조종사 양성, 여군참모 및 부사관 임용 등 적극적으로 전문·여성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선진 공군의 위상을 국민들에게

게 보여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공군은 2002년도 공군 운영의 기본 틀을 '새 천년 선진 정예 공군 육성'의 지속 추진과 전반기적 안보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는 ▲ 완벽한 전비태세 유지 ▲ 미래지향적 공군력 건설 ▲ 정보화·과학화 군 운영 ▲ 경제적 군 운영 ▲ 선진 병영문화 창달을 실천하기로 하였다.

특히, 내년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가 있는 시기인 만큼, 불특정 집단에 의한 어떠한 도발도 응답하지 않는 '완벽한 열공방위 임무완수'를 위한 공군 전장 병들의 결의와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비행안전 및 각종 사고방지를 위한 근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2년으로 연기된 차기 전투기(F-X) 기종결정 및 차기 유도무기(SAM-X), 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 등 '21세기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과 '전략형 공군력 건설'을 위한 공군의 주요 전력증강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군인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李 총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전면전, 국지전, 대테러전 등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도전에 대비한 '완벽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전 공군장병들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전략형 공군력 건설'을 위한 공군의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주산업(KAI)과 미국의 록히드-마틴사가 공동 개발하는 T-50 고등훈련기는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KF-16과 F-15, 라팔 등 전세계 최고 성능을 지닌 차세대 전투기의 조종훈련을 위해 설계된 초음속 항공기이다.

이번 1호기 출고는 지난 1997년 10월 한국공군과 KAI가 '초음속 고등훈련기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한 이후 4년만에 이룬 국가적 차원의 성과다.

'T-50 고등훈련기' 시제 1호기는 공군의 사업 주도하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국내외 OO개 협력업체와 더불어 'T-50 고등훈련기'의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항공기의 외부형상 확정, 내부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방·중앙·후방 통제 등의 부분품 제작과 최종조립 등 신기종 항공기 개발의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탄생하게 되었다.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시제 1호기를 출고한 'T-50 고등훈련기'는 각종 지상 테스트와 공군 시험비행 조종사의 시험비행 과정을 거쳐 2003년부터 대량생산을 시작하고 2005년에는 한국공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국내 독자기술 최초 항공기인 'KT-1 기본훈련기' 용비(雄飛)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바 있는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00년대 전세계 항공업계에서 최초로 출시되는 고등훈련기 기종

인 'T-50 고등훈련기'를 이미 노후화된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을 대상으로 800~1,200대 수출하여 총 300억 달러 상당의 외화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T-50의 무장형인 A-50 기종은 F-4와 F-5를 대체할 경공격기로서 공군의 추가 구매가 예상되며, 세계시장에서도 톱급 항공기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번 T-50/A-50 사업을 통해 21세기 훈련기 및 경공격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국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출고는 공군의 국산항공기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자본과 기술의 통합이라는 대기업 비결에서 발생한 시너지 효과, 국내 유일의 방위산업 항공분야 전문화업체로 지정받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세계 10대 항공기 수출국'을 향한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경남 사천공장에서 열린 '초음속 항공기 출고 기념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차사를 통해 "정부는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 분야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005년까지 독자적인 인공위성 발사체와 발사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江陵基地 作戰記念行事' 개최

- 6·25전쟁 당시 한국공군 最初 單獨出擊 作戰遂行 意味 再照明
- 空軍參謀總長, 參戰操縱士, UN 參戰勇士 등 1,000여명 참석
- 거리축제, 민·군 화합 음악회, 에어쇼 등 다채로운 행사 펼쳐져

공군은 6·25전쟁기념사업단 주관하에 11월 9일(금), 10일(토) 양일간 6·25 당시 한국공군 최초 단독출격 50주년 기념 「공군 강릉기지 작전기념행사」를 이억수(李億秀, 59) 공군참모총장, 백선엽(白善燁, 81) 6·25 기념사업단 위원장, William J. Solitis(79, 미국) UN 참전조종사 및 참전용사, 인근 지역 기관장 및 부대장 등 각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빨간 마후라의 고함이라고 불리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6·25 당시 한국공군 최초의 단독 출격 작전수행과 전쟁기간 중 7,800여회나 출격하여 공군임무의 대부분을 소화해낸 「공군 강릉기지작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전야제와 본행사로 나누어 열린 이번 행사는 9일 ▲ 작전기념 거리축제 ▲ 민·군 화합음악회 등의 전야제 행사를 시작으로 10일 ▲ 추모식 ▲ 작전기념식 ▲ KF-16, KT-1, 'Black Eagle' 에어쇼 ▲ 100회 출격기념 행사 ▲ 기지 개방 행사를 통해 강릉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석을 유도했다.

특히, 전야제로 9일 오후에 강릉시 일원에서 실시될 「작전기념 거리축제」에서는 공군군악대의 일찬 연주와 함께 공군 근기단, 공군의장대, 6·25전쟁 참전조종사 및 참전용사들이 참여하는 카퍼레이드가 펼칠 예정이어서 강릉이 공군의 모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공군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작전기념 거리축제」종료 후 오후 6시부터 강릉 문화예술관광 특색무대에서 공군장병과 강릉시민 약 1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 공군군악대 및 강릉시립합창단 합동 공연 ▲ 국방부 국악대 연주 ▲ 코요테, 사크라, Y2K, 소찬휘 등 국내 정상급가수가 출연하는 「민·군 화합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공군상을 보여 주었다.

10일에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내에 위치한 강릉기지 전공탑에서 6·25전쟁 당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실시하였다.

추모식에 이어 「공군 작전기념식」을 거행하고, 6·25전쟁 당시 한국공군 최초 단독출격 작전의 성공적인 수행을 기념하고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선양한 예정이다.

공군참모총장(大將 李億秀)은



國內 最初의 超音速 航空機 'T-50 高等訓練機' 出庫

- '97년 10월 개발 착수해 4년만에 試製 1호기 출고
- 2000년대 전세기 항공업계 최초로 출시되는 高等訓練機
- 세계 高等訓練機 시장에서 300억 달러 상당의 해외수출 기대
- 자주국방과 항공 선진국 진입의 轉機 마련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지난 10월 31일 경남 사천공장에서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인 'T-50 고등훈련기'(일명 Golden Eagle)의 출고기념식을 갖고 시제 1호기를 일반에 공개했다. 공군이 발주하고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 종합업체인 한국항공

(5면에서 이음)

記念式辭에서 "공군의 혼이 서려 있는 강릉기지에서 참전선배님들, 강릉시민들과 함께 6·25 당시 우리 공군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그 날의 승리를 돌이켜 볼 수 있어서 무척이나 감사하다"고 말하고, "공군은 '전략형 공군력 건설'을 통해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수행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전기념식에 이어 한국공군 최선에 KF-16를 비롯한 F-4, F-5, KT-1 등 한국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및 기본훈련기들의 축하비행과 국내 유일의 곡예비행팀인 공군 'Black Eagles'의 화려한 곡예비행을 선보여 '21세기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는 공군의 모습과 반세기 동안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여 온 공군의 위용을 마음껏 펼쳐 보였다.

축하비행 이후,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는 ▲ 군악대 및 의장대 시범 ▲ 육군특전사 고공강하 ▲ 모형항공기 및 스포츠 카이트 비행 시범 ▲ 항공기 및 무장전시 ▲ 6·25전쟁 관련 사진전시 ▲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 ▲ 불로켓 발사 시범 ▲ 조종복 입고 사진찍기 ▲ 먹거리 장터 등 참여한 시민들

에게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제공하는 기지공개행사를 개최하였다.

기지공개행사 중에는 공군전투조종사가 비상 출격하여 이륙하는 장면을 실제로 연출해 보이며, 6·25 당시 조종사들의 100회 출격을 환영하기 위해 강릉여고 학생들이 꽃다발을 증정하며 빨간마후라를 부르던 50년 전의 모습을 재연하는 「100회 출격기념 행사」가 열렸다.

한편, '공군 강릉기지작전'은 6·25전쟁 당시인 1951년 7월 한국공군이 단독작전을 위한 전지기로 강릉기지를 선정하고 동년 9월 28일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대대가 강릉기지에 이동을 완료한 후, 10월 11일 새벽 역사적인 한국공군 최초로 단독출격을 수행한 작전이다.

이후 강릉기지에서 출격한 한국공군의 주력기인 F-51 무스탕 전투기는 6·25기간 총 8,495회의 공군출격 중 7,818회의 출격을 감당,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평양 대폭격작전, 351고지 전투지원작전 등 직후방의 보급로에 대한 무장정찰 및 보급로 차단작전 등의 혁혁한 전공을 세운 공군의 대표적인 작전이다.



1차 물자공수 임무에 투입되는 251비행대대는 걸프전, 소말리아내전, 동티모르 등 해외 작전을 3차례나 한 바 있는 정예부대이다.

공군은 C-130 항공기를 도입한 이래 '91년 2월 걸프전, '93년 소말리아내전, '99년 동티모르 파병지원 등 3차례에 걸쳐 수송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세계 평화유지와 국위 선양에 일익을 담당한 바 있는데 이번 미 대테러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다시한번 한국공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

이날 참석식에서 이역수 공군참모총장은 "이번 파병은 그동안 우리 공군의 작전능력과 활

동영역이 극력신장과 더불어 전세계의 하늘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사명에 동참한다는 높은 긍지로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군은 이번 수송지원단 파견에 앞서 지난 10월 조종사, 정비사 등 승무원 병력에 대해 저고도/장거리 합법훈련 및 전술 이착륙 훈련 등 사전 비행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야포간 추돌에 대비하여 전 과정에 포함된 국제법, 주변정세, 군법/국제법, 관습, 풍토병, 화학전/사격훈련 등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했다.

공군 작전사령관, 冬季對備態勢 點檢 不時防空訓練 實施

- F-5F 전투기로 한반도 전역 비행단 돌며 비상출격태세 점검
- 긴급출동절차 및 초속요격절차 확인

공군 작전사령관은(중장 김대욱)은 지난 12월 9일(일) 오후, 동계 작전대비태세 점검의 일환으로 관제사들의 영공감시 태세와 전 지기 비상대기 전역의 긴급 출격 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비행을 실시하였다.

훈련효과 제고를 위해 사전 통보 없이 시작된 이번 훈련은 작전사령관이 탑승한 F-5F 항공기가 수원기지를 이륙한 뒤, 비행 경로별로 비행단에 차례로 가상 적기의 침투를 선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비상이 걸리자 해당 비행단에서는 즉각 비상대기종인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으며, 작전사령관이 조종하는 가상적기를 포착, 요격, 사상격추하는 순으로 훈련이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동계대비태세 강화와 빈틈없는 영공방위태세 유지를 확인한 이번 훈련은 한반도 전역의 레이더 기지 및 비행단에 대하여 이루어져 휴일에도 빈틈이 없는 공군의 대비태세를 과시했다. 금번 훈련을 통해 요격관제사들의 상황에 따른 정확한 대응능력과 전투 조종사들의 완벽한 긴급출동절차 및 초속요격절차 수행을 확인하였으며, 실질적인 적기격추를 위한 단거리 요격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1세기 하늘을 지키는 TOP GUN 誕生 2001 보라매 空中射擊大會

- 2001년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施賞式 거행
- "TOP GUN"에 19전비 조종사 이길춘 대위, 대통령상 수상
- 공군조종사들의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戰鬪能力 確認

공군은 11월 28일(수) 오전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이역수(李億秀)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각급 지휘관·참모와 8전비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보라매 공중 사격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4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일 까지 열렸으며, 공군의 모든 비행대대가 출전, 최정에 전투조종사와 정비사가 최고수준의 주·야간 폭격 및 공중전 기량을 통해 자용을 겨루었다.

특히 올해 최우수 공중사격수(일명 : TOP GUN) 영에는 KF-16 조종사인 제19전투비행단 155대대의 이길춘 대위(李吉春·32·공사 42기)에게 돌아가 개인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투기 기종별로 돌아가는 영예의 대통령상인 종합 최우수대대는 8전비의 207대대(F-5), 11전비의 151대대(F-4), 19전비의 155대대(F-16)가 수상했다.

또한 이 밖에도 18개 우수대대와 30여명의 사격 우수자가 국방

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이날 이역수(李億秀) 공군참모총장은 시상식 훈시를 통해 "자신이 조종하는 항공기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훈련에 더욱 정진해 달라"고 말한 뒤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최신 군사이론을 습득, 영공수호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조종사의 기량을 실제로 엄정하게 평가하고 확인한 결과 전 기종의 사격기량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으며, 특히 한국공군의 주력 기종인 KF-16의 중고도 사격 및 야간 사격 기량이 그 어느 때 보다 우수하게 평가되어 명실상부 영공방위를 위한 최정에 전력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라매 공중사격대회는 지난 1960년에 처음대회를 개최한 이래로 올해 42회째이며, 최상의 전투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종사의 기량평가는 물론 지원요원들의 능력도 함께 평가하는 공군 최대 최고 규모의 대회로서 부대 및 개인별 대통령상, 국방부 장관상, 합참의장상, 참모총장상, 작전사령관상이 주어진다.

靑馬부대 創設式 거행

(韓國空軍 輸送團)

- 국제평화 유지와 國威宣揚에 寄與
- 21일경 첫 輸送任務 遂行

공군은 12월 18일(화) 오전 이역수(李億秀)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각급 지휘관·참모, 장병 및 군무원과 지역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 제5전술비행단에서 한국공군 수송지원단(靑馬부대) 창설식을 거행했다.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따른 다국적군의 수송지원 임무를 수행하

게 될 한국공군 수송지원단은 김득환(金得煥, 공사24기, 49세) 준장(진)을 단장으로 한 조종사, 정비사 및 지원요원 150명과 C-130 4대로 구성되어 국내에 주둔하면서 미 대테러전쟁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공군 수송지원단은 12월 21일경 조종사, 정비사, 적제사 및 현지파견요원 18명을 구성, 김해~디오에 가르시아간의 물자공수를 1차 임무로 하여 본격적인 수송지원 임무에 들어갔다.



(6면에서 이음)

주요 施賞內譯

- 부 대

내 용	부 대	數 格
공중 사격 종합 최우수대대	8비 207대대	대통령
	11비 151대대	
공중 사격 종합 우수대대	19비 155대대	국방장관
	16비 202대대	
공중투하 최우수대대	17비 156대대	국방장관
	20비 157대대	
항공정찰 최우수대대	5비 258대대	국방장관
	6전대 233대대	
공중 사격 종합 준우수대대	1비 206대대	합참의장
	18비 105대대	
항공정찰 최우수대대	20비 123대대	합참의장
	39전대 131대대	
아간사격 최우수대대	8비 203대대	합참의장
	19비 159대대	
A-37 최우수편대	8비 238대대 B편대	참모총장
LOFT 최우수대대	11비 151대대	
최우수 작전지원 비행단	20비 123대대	제20전투비행단

- 개 인

내 용	부 대	수 상 자	數 格
종합 최우수 조종사	19비 155대대	대위 이길춘	대통령
종합 우수 조종사 (기종별 1명)	16비 202대대	소령 이용원	국방장관
	11비 151대대	소령 우중석	
	20비 121대대	소령 김중환	
공중사격 종합 준우수	18비 105대대 외 3개 대대	소령 윤택명 외 3명	합참의장
공중투하 종합 최우수	5비 258대대	소령 박영원	
탐색구조 종합 최우수	6전대 233대대	소령 남기진	합참의장
항공정찰 종합 최우수	39전대 132대대	소령 오영덕	
중고도사격 최우수 외 9종	18비 105대대 외 16개 대대	소령 김정섭 외 16명	참모총장

空軍特殊飛行 팀(BLACK EAGLES)

블랙이글의沿革

대한민국 공군은 195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사천 비행단 소속의 F-51 무스타 4대로 처음 특수비행을 실시하였으며 1958년까지 매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한 차례씩 특수비행을 일반인에게 선보였다. 이후 1962년 한강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경축행사에서 대구비행단 소속 F-86 4대로 구성된 "블루 세이버"(BLUE SABRE)팀은 조종사의 비행 기량을 과시하며 전에도 없던 다양한 편대기동을 선보이는데 우리 나라에서 실질적인 에어쇼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66년에는 당시 대한민국 공군의 최신 기종인 F-5A를 특수비행에 사용하게 되었고 현재의 팀명인 "블랙이글"을 사용하였다.

1978년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던 당시 블랙이글은 매년 에어쇼 실시 3~4개월 전 팀이 구성되어 활동하였으며 에어쇼 후에는 해당 전투대대로 돌아가는 형식을 취하는 非常設 특수비행팀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공군 전체의 보유기종을 선보이기 위하여 다수 기종의 대규모 편대군의 공중분열이 에어쇼로 대신하게 됨으로써 "블랙이글"의 활동은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었다. 이후 에어쇼 팀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1994년 A-37B 6대로 삼설 전투 특수비행팀이 구성되어 "블랙이글"을 재창설한 것이다.

전국을 누비다.

팀 재창설 이후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1996년 서울 에어

쇼, 1997년 국제 마라톤 대회, 1998년 건군 50주년 기념행사 및 서울 에어쇼, 1999년 공군 창군 50주년 기념행사, 2000년 침주 국제항공 엑스포 등에 참가하였으며 2001년에도 국군의 날 행사와 서울 에어쇼 등 총 30여회의 全國軍·民 團體行事에 축하비행 및 에어쇼 비행을 실시하여 국민들로부터 讚賞과 공군의 位相을 提高하였다.

블랙이글의 특수비행

블랙이글 항공기는 스톱코를 분사하여 비행경로의 변화를 실현하며 이로써 관람객들은 지상에서도 블랙이글의 비행을 또렷이 보면서 특수비행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블랙이글은 6대의 항공기가 때로는 하나의 편대대형으로 때로는 각각 분리하여 기동을 실시하는데, 이때 비행경로와 비행자세의 현란한 변화는 마치 공중을 무대로 펼쳐지는 공연같기도 하고 푸른 하늘을 캔버스로 그리는 그림같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블랙이글이 보여주는 특수비행은 3차원 공간속에서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특수비행을 담당하는 블랙이글 조종사는 현재 9명이며 우수함 조종능력을 보유한 최정에 전투조종사들이 선발, 배속되어 일정기간 특수비행 훈련을 이수한 후 실제 행사비행을 맡게 된다.

따라서 블랙이글 조종사는 대한민국 전투조종사를 대표하는 탁월한 조종능력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성과 세련된 매너를 겸비

하여 민간행사를 비롯한 각종 대내외 행사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얼굴로 활동한다. 블랙이글 조종사에게는 팬클럽이 결성되어 활동 중이다.

팬클럽은 조종사를 꿈꾸는 청소년, 미래 항공시대의 주역인 어린이, 항공매니아계층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남녀노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평소 인터넷을 통하여 블랙이글 팀원들과 교류하며 블랙이글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열성을 가지고 있다.

연 2회 블랙이글은 이들을 부대로 초청하여 함께 하는 정기행사를 주최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성원은 블랙이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최근 서울 에어쇼 2001에서 블랙이글 홍보부스에서의 팬클럽 회원들의 지원봉사활동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상실 에어쇼 팀으로 출범한 지 불과 7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블랙이글은 세계각국의 유명 에어쇼 팀과 교류하며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점차 세계적인 에어쇼 팀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매년 한 차례 블랙이글 팀원들은 외국 유명 에어쇼 팀을 방문하여 자료수집 및 팀 관리, 기동개발, 안전관리, 행사운영, 홍보 등에 관한 에어쇼 팀 전반에 관한 노하우를 습득하며 이를 우리 현실과 접목하기 위한 연구를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며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음은 물론이다.

블랙이글은 수년 내에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항공기로 전세계를 누비며 우리 항공기의 우수성과 전투조종사의 탁월한 비행능력을 선보이며 국력을 과시하는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블랙이글의 훈련

블랙이글의 기동은 완벽한 팀워크를 전제로 한다.

웅장한 모습의 밀집편대대형 비행을 위해서는 전체팀원이 호흡과

심박박동까지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간격을 유지하며 비행하는 편대비행과 내달성과 정교함을 요구하는 단독기동비행이

정확한 시간간격을 두고 서로 교차하며 진행되는 에어쇼는 오랜 훈련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블랙이글의 노하우 덕분이다. 블랙이글은 기본편대 대형으로 6기 DELTA 대형, DOUBLE VIC대형, EAGLE대형, 5기 TRAIL대형, WEDGE대형, 4기 DIAMOND대형이 있다. 이러한 기본편대 대형을 유지하며 LOOP, VERTICAL SPLIT, TRAIL ROLL, LEVEL OPENER, TRAIL TO WEDGE, VERTICAL FLAT PASS, WEDGE BREAK 등의 역동적인 기동을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관람객이 계속적으로 에어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동 사이에 KNIFE EDGE, VERTICAL CLIMB ROLL, HEART, APACHE ROLL, DOUBLE LOOP 등 SOLO 항공기들의 스틸 넘치는 기동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블랙이글은 관람객들에게 보다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항상 새로운 과목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먼저 팀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동개발회의를 통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새로운 기동에 대한 개념 수립을 하게 된다. 이후 圖上會議을 통하여 실제 비행시 지상에서 보이는 모습 및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마친 후 비로소 시험비행을 실시한다.

비행은 먼저 단계, 2기, 4기, 6기로 점차 늘려가며 실시하고 반복 속달 훈련을 통하여 새 기동을 숙련하게 된다. 자체판단상의 부족한 점과 예기하지 못했던 문제점조차도 조종사들의 축적된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와 팀원들간의 팀워크로써 보완한다.

결국 하나의 機動은 Team원간 精神的인 紐帶와 蓄積된 技術의 反復된 訓練과 默契로 完成되며 3次元空間에서 藝術로 나타나는 것이다.

블랙이글 조종사 프로필

성 명	직 위	기수	배속일	총시간	가속	취 미
중령 김우정	특수비행대장	사 33	2001. 4.	3,200	2남	골프, 테니스
소령 서민오	팀장	사 37	2001. 5.	1,700	1남1녀	홀웨이 테니스
소령 이철희	예비	사 39	1999. 1.	2,100	2남	골프, 테니스
소령 박대서	Lead Solo	사 40	2000. 9.	1,100	1남	영화감상, 컴퓨터
소령 손영찬	Slot(4번기)	사 40	1999.12.	1,300	1남	골프
대위 김일환	Right Wing	사 41	2000. 4.	1,100	1남1녀	운동, 미술
대위 김영화	Left Wing	사 41	2000.11.	1,200	1남	운동, 여행
대위 문도철	Solo Spare	사 41	1999. 7.	1,100	미혼	운동, 골프
대위 임준업	Opposing Soto	사 42	2001. 2.	1,000	미혼	여행, 태권도



母 · 校 · 消 · 息

21세기 리더를 위한 人性教育 方案 摸索

- 11월 23일(금), 공군사관학교에서 제1회 人性教育 심포지엄 개최
- 군내 최초로 空軍士官學校와 韓國相談學會 공동 開催
- 國內의 碩學과 專門家 초청, 21세기 리더 위한 人性教育의 發展方向에 대해 深度 있는 주제발표 및 토론 성과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관심과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사관학교 등 지도자 양성 교육기관의 인성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회 인성교육 심포지엄」이 공군사관학교와 한국상담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가운데 11월 23일(금) 오전 11시, 공군사관학교 성무문화관에서 개최되었다.

주창성(朱昌成) 공군사관학교장의 개회사와 한국상담학회 이형득(李炯得) 회장의 축사에 이어 한림대 석좌교수인 정범모(鄭範謨) 교수의 기조연설 "지도자의 인성 함양"으로 시작된 이번 "인성교육 심포지엄"은 「21세기 리더 양성을 위한 바람직한 인성교육 방향」을 탐색하고 토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조태훈(曹泰勳, 56) 충북대 국민윤리학과 교수의 '역사적으로 본 인성교육의 실태 및 발전방향' 연문희(延文熙, 58)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의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리더의 자질 및 특성' 김창대(金昌大, 41), 김계현(金桂玄, 47)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의 '고등교육기관의 인성교육의 현주소 및 발전방향' 장덕수(張德守, 60) 전 공사역사철학과 교수의 '군 인성교육의 중요성 및 발전방향'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날 개회식에서 空士校長(中將 朱昌成)은 개회사를 통해 "知識情報시대의 눈부신 물질적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더 크고 많은 어려움과 葛藤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21세기 리더를 위한 人性教育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고 말하고 "금번 심포지엄을 통해 사관학교를 비롯한 모든 指導者 養成 教育機關들의 人性教育 프로그램이 學術的으로 더욱 鼎盛해지고 體系的으로 發展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玉滿鎭), 주영복(周永福), 유치곤(俞致坤) 등 당시 유명했던 임진출격 조종사들까지 구명운동을 벌였고, 최용덕(崔用德) 공군참모총장까지 유치장에 있는 이 의장을 직접 찾아와 위로했다.

결국 이 의장은 군사재판을 받아 퇴교 당했는데, 퇴교 당하는 날 3.4.5기생까지 모두가 교문까지도 열해 눈물을 흘리며 이 의장을 전송해 주었고, 심지어 공사에 근무하던 장교·사병·군무원·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까지 이 의장의 퇴교를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뿐만 아니라 이 의장의 회

생적 퇴교는 같은 진해에 있던 육사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당시 강의 시간에 교관들이 이 의장 이름을 거명하며 귀감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 의장은 공사를 퇴교했지만, 공사 3년을 군복무 기간으로 환산해 법적으로 병역의 의무는 다 마치고 공군 이병으로 재대했으며, 퇴교 후 연세대에 복학했다.

한편, 이날 명예 졸업장 수여식에서는 당시 이 의장과 함께 퇴교한 김재완(金在浣) 전 경주군수와 조박현(曹博賢) (주)세일타크 사장 이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



李萬燮(국회의장) 空士 名譽卒業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은 11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청주 공군사관학교 교정에서 거행된 3기 사관 입교 50주년 기념식에서 입교 51년만에 당시 입학 동기생과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창성 공사교장(공사 16기, 중장)으로부터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의장이 입교 51년만에 공군사관학교 명예 졸업장을 받는 사연은 이렇다.

대구 수창 초등학교와 대륜 중학교(6년제)를 졸업한 이만섭 의장은 정치의 길을 통해 나라이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하여 24: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무난히 합격했다.

당시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집안 사정이 어렵던 이 의장은 당시 담임이었던 권진태(權鎭泰) 선생과 반기화(潘基華) 체육선생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50년 6월 1일에 연대 정치외교에 입학사리 등록을 마쳤다. 당시 입학동기로는 한기춘(韓基春) 전 외국어대 교수, 이종용(李鍾容) 전주대 총장, 한배조(韓培造) 전 고려대 교수, 오자복(吳滋福) 전 국방장관 등이 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한 지 한 달도 안되어 6·25 동란이 발발하자 '50년 11월 1일, 공군참모총장과 13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인기(金仁基)씨와 함께 진해의 공군사관학교 3기생으로 입교했다.

「하늘 높은 곳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하늘에서 조국을 지키자」는 신념으로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이 의장은 성격이 분명하고 활동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2학년 때 생도회격인 오성회(五星會)를 조직, 회장으로 뽑혔다. 그러나 하늘에서 조국을 지키겠다는 이 의장의 소박한 '파일럿'의 꿈은 2년만에 꺾일 수 없는 사건으로 깨어지고 말았다.

'53년 본격적인 비행훈련이 끝나고 10개월 후면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터졌다. 진해에서 대전의 항공병학교로 이동, 비행훈련 이전에 실시하는 마지막 지상훈련을 마치고 밤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임관을 하루 앞둔 장교 후보생들이 유성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3기 사관 불침번에게 공연히 시비를 걸어와 이들과 공사 3기생간에 패싸움이 벌어졌다. 사건 발단의 책임은 장교 후보생 측에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부상자가 생겨, 전시 중이라 공군에서 그대로 넘기에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10달 후면 임관하게 되는데, 최소한 6~7명은 어쩔 수 없이 처벌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의장이던 이 의장은 "비록 현장은 몰랐지만, 회장인 내게 책임이 있다. 그러니 모든 건 내가 책임을 지고 동료들을 살려야겠다"고 동료들을 위해 자기 희생을 결심했고, 결국 이 의장이 혼자 책임을 지고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이 의장이 책임을 지고 회생하겠다는 생각은 군 내부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공사 출신 장교들을 물론, 육군도

제54기 新入生 最終合格者 (2002학년도)

- 21세기 항공우주시대와 전략형 공군을 이끌어 갈 잠재력 갖춘 우수자원 입선

- '97년 여성도 입교 이후 처음으로 울산 현대청운고 황은정(黃銀晶) 양이 전체수석의 영예

- 남자 수석은 대구 경상고 출신 소인태(蘇仁泰)군이 차지

공군사관학교는 12월 7일(금), 2002학년도 제54기 사관생도 신입생 최종합격자 ○○○명(여자 20명 포함)을 선발하여 발표했다.

이번에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21세기 항공우주시대와 전략형 공군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적과 체력, 인성, 적성 등에서 우수한 자질과 잠재력을 고루 갖춘 인재들로서, 공사 신입생 선발 방침에 따라 높은 경쟁률 속에 엄정한 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되었다.

한편, 전체 수석의 영광을 지닌 '97년 사상최초의 여성도 입교 이후 처음으로 울산 현대청운고 출신의 황은정(黃銀晶, 18세, 여)양이 차지하였으며, 남자수석은 소인

태(蘇仁泰, 20세, 대구 경상고 졸업)군이 차지하였다.

이번에 선발된 공군사관학교 제54기 신입생들은 '02년 1월 26일(토)에 가입교 후 4주간의 기본 군사훈련 과정을 거쳐 2월 말에는 영예로운 입교식을 갖고 정식 사관생도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다.

수석합격자 개인 프로필

황은정(黃銀晶, 18세, 여)
울산 현대청운고등학교 졸업

남자수석(문과)
소인태(蘇仁泰, 20세, 남)
대구 경상고등학교 졸업

입시관련 화제

54기 합격자 중에는 형 육대용(50기), 동생 육승민(54기) 공사생도 형제가 탄생하였으며, 부자동문(부친 이요섭 26기, 아들 이재희 54기)도 탄생하여 신입생 합격자의 화제가 되었다.

+ + + + +

지면관계로 회원님들께서
투고하신 원고를 모두
게재하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회원기고란

祖國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李 萬 燮(공사 3기, 국회의장)

- 空軍士官學校 名譽卒業式에서

그렇게도 정들었던 공사를 떠난 지 51년 만에 오늘 이 사람은 다시 나의 모교로 돌아왔습니다. 나를 다시 모교의 품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주창성 공군사관학교 교장과 공군 담곡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나를 다시 이 자리에 오게 하고 내가 명예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나의 영원한 동지 3기 사관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뜨거운 감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또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랑스럽고 믿음직한 후배사관생도들을 만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대학의 졸업장도 받았고, 명예박사도 받아보았으며, 여러 번에 걸쳐 국회의원 당선통지서도 받아 보았으나, 오늘 이 공사졸업장이야말로 나의 인생에 있어 가장 명예스러운 것이며 감격의 졸업장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지들과 헤어져서 모교를 떠난 것은 1953년 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떠나는 전날 밤 환승연에서 나는 동기생들과 함께 「야! 목동야!」(오! 대니 보이)를 함께 불렀습니다.

사물을 어깨에 메고 떠나는 날 동기생과 4·5기생이 교문 앞까지 두 줄로 서서 눈물로 나를 보내주고, 군무원과 의무실의 간호사, 식당에서 일하던 아주머니들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별의 손을 흔들며 주웠습니다. 나는 그 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조종훈련을 바로 앞두고 마지막 지상훈련을 받던 대전항공학교에서 일어난 그날 밤의 사건은 불의의

보고 참지 못하는 정의감과 군기를 바로 세우려는 3기생의 올바른 신념이 그 동기였으나 결과적으로 사건이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책임 있다고 나서는 것을 말리고 오성회 회장이었던 내가 혼자 모든 책임을 졌으나 그래도 나 혼자 떠나 보낼 수 없어 조박현, 김재완 동기 등이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학교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후 한시도 모교를 잊어 본 적이 없으며, 내 인생에서 어려울 때 불착할 때마다 "우리는 퍼퓌는 대항의 아들...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바친다"는 공사의 교가를 외치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군사관학교의 교훈은 바로 내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모교의 교훈을 가슴깊이 간직하였기에 40년 정치역정에서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았으며, 개인과 당보다 나라와 국민이 더 중요하다는 신념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남은 내 정치역생을 모교인 공사의 교훈을 받들어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공군사관학교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 가지 강조하고자 합니다. 조국을 지키는 길을 무엇보다 철통같은 안보태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물살을 없는 안보를 바탕으로 할 때만이 진정한 남북간 평화공존과 협력 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와 이 자리를 함께한 후배들과 함께 몸과 마음을 바쳐 조국과 하늘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나의 모교인 공군사관학교여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戰鬪 操縱士와 愛國心

朴 鍾 權(공사 9기)

거부할 수 없는 한 순간에 적의 전쟁 지도부를 殲滅하고 전략 목표를 감타해 내는 것이 항공세력이다. 一國의 확실한 항공세력은 바로 그 자체가 전쟁 抑止力이 되는 동시에 전쟁승리의 결정적 무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주권 국가들은 차세대 전투기를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군사력 건설의 核心 과제가 되어 왔고 그 항공세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목적 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왔다.

그 지대한 관심 속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실체 하나는 그 전투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전투 조종사들의 능력과 관리이다. 특히

현대전의 전사를 통해서 그들이 승리의 결정적 역할을 해 왔음을 살펴 볼 때에 형식에 전투 조종사들이 어떻게 특수 관리되고 있는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특별한 관심은 군 지도자들에게 전투기 확보에 못지않게 가져야 하는 큰 관심 사항의 하나이다.

특히 차세대 최첨단 전투기 한대의 가격이 1千億이 넘는 오늘날 그 전투기를 조종할 전투 조종사의 사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징급 문제와 복직 문제는 전투기 자체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의미가 있으며 어떤 전문 특기보다도 특별한 차별화로 그들의 전문성과 애국심을 고揚시켜 나가야 할 과제이다.

지난 9월 11일 뉴욕에서의 세계 무역센터와 미 국방부를 공격한 전투기가 아닌 민간 여객기의 가공할 자살 테러 사건은 21세기 새로운 전쟁을 예고했고 인간의 사상적 정신적 영역의 통제야 얼마나 어려운 것이며 동시간에 가미가제 시 挑戰이 얼마나 무서운 힘의 實體인가를 새삼 느끼게 했다.

여객기와 민간 조종사가 그려갈 진대 최첨단의 전투기에 애국심으로 精銳化된 전투 조종사들을 앞세운 일 국가의 군사력의 결행의 의지는 기해 전쟁 역지의 수단이 될 것임과 군사력의 행사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최후의 힘으로 誇示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음속으로 나는 대형 여객기는 세계를 지구촌의 일일 문명권으로 바꿔 놓았고 전투기는 가공할 침투성과 운반 수당과 파괴력으로 전쟁과 인류의 역사를 바꾸 놓았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전투 조종사들은 군인 중에서도 남다른 애국심으로 죽어서는 군신이 됐고 살아서는 전쟁영웅이 된 대표적인 인사들이다. 이러한 사례는 전쟁사 수 없이 많으나 태평양전쟁의 신호탄이 된 일본의 진주만 기습공격과 이를 극적으로 보복한 미국의 동경 전략폭격, 그 廣闊한 태평양의 바다와 하늘 공간에서 펼쳐진 전투 조종사들 간의 처절한 공중 전투 기록들은 敵我를 떠나 조종사들의 애국심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국가와 세계 운명을 바꾸 놓은 40여대의 일본 태평양 함대의 艦上 전투기들은 6척의 航母단에서 이른 새벽에 진주만을 향해 발진했다. 일본은 태평양 함대와 艦載機, 전투 조종사들의 애국심을 믿고 미국에게 선전포고한 것이다.

진주만의 성공적 기습은 전쟁 초기 勝機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 미국 국민을 분노케 했고 알뜰을 얻을게 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일본 본토 폭격으로 보복할 것을 주문했고 전쟁 지도부는 전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동경전략 폭격을 극비에 준비했다. 동경전략 폭격을 감행할 하늘의 결사대가 결성된 것이다.

진주만 공격 133일 만에 미국 최고의 전투 조종사, 제임스 H. 두리틀 중령은 B-25 중폭격기 16대와 80명의 항공 결사대를 이끌고 항공모함을 발진하여 동경으로 날아 갔다. 훗날 미국식 가미가제라고 명명된 이 전설적 동경 전략폭격은 세계 항공전사에 있어 너무나 유명하다. 당시 폭격기는 함모에 이착륙이 가능토록 고안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500파운드 폭탄 4발씩을 달고 함모에서 최단거리 이륙이 되도록 조종사들은 훈련을 받았다. 함모 호넷트는 최대로 일본 본토에 500-400마일까지 접근한 후 폭격기편대를 撥進케 해야만 16대의 결사대는 동경폭격 후 비상 연료로 곧바로 서남쪽으로 한반도참가로질러 서해를 넘어 중국으로 날아 갈 작정이었던 것이다.

호넷트 함모단은 동경 접근 800마일 해역에서 일본 정보보안들을 발견하여 그들을 격침시키면서 환장은 일본 전투기들이 닥치리라

예상했다. 다음날 아침 본 작전계획의 예정된 출격 해역에 도착하기 400마일이나 일찍 발진 명령을 내렸다. 1942년 4월 18일 오전 8시 역사적 결단이었다. 그들은 이미 출격하면서 동경폭격 후 연료 부족으로 중국대륙의 서해안까지도 도달할 수 없음을 알았다. 4시간 후 성공적으로 동경폭격을 마쳤으나 돌아갈 길로의 연료가 부족했다. 결국 연료 부족과 악천후 속에서 대부분이 서해상에 불시착을 하거나 엔진이 정지하자 공중 탈출을 감행했고 일부는 만주, 블라디보스토크 등지로 날아갔다. 대부분 중국인의 보호를 받았고 일부는 일본의 포로가 됐다.

중전이 됐을 때는 생존자가 모두 60명이었다. 두리틀 중령은 중국에서 본국으로 돌아와 장군으로의 2개급 특진과 회개가 주는 최고 훈장을 받았으며 훗날 대장까지 승진했다. 생존자들은 해마다 4월 18일에 모여 그들의 애국심을 돋보이게 했고 사라져가고 있는 동지들을 추모했다.

지금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한 미 공군사관학교의 역사 기념관은 동경 폭격대원의 이름이 새겨진 80개의 은금이 진열되어 있고 아직 살아 있는 자의 곁은 바로 세워져 있었으므로 그날 그 출격의 성공을 빛냈던 축배의 의미로 그리고 이제 유명을 달리한 동지의 곁은 뒤집어 세워 놓아집으로써 영원히 역사적 사건을 기념케 했고 내일의 전투 조종사들에게 애국심의 한 표본이 되게 했다.

이 동경 폭격의 전략적 의미는 아직도 동주만의 恥辱의 총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국 국민들에게 크게 사기를 북돋았고 반대로 일본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동경 폭격으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다. 연합함대의 야마모토 사령관은 본토 보호를 위한 미드웨이 공략을 감행하려다가 필연적으로 미드웨이 해전을 자초했고 이 해전에서 패전을 태평양전쟁의 승패의 갈림이었다. 혹자는 동경폭격을 미국식 가미가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본 가미가제 특공대는 전사의 기록에 보면 1944년 7월경 비올린 클라크 기지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 있지만 일본의 최고의 에이스 사키 사부로에 수기에 의하면 그보다 4개월 앞서 유타도에서 이미 결행했다. 미국의 함모를 백주에 감속하기 위하여 雷擊機에 에회를 달고 엄호 전투기는 함께 이륙을 해서 함모를 찾아가되 어떠한 경우에도 에회를 투하하지 만 결과 공중 전투를 하지 말 것이며, 함모를 발견하면 에기와 함께 함상으로 돌진 산화할 것을 명령받았다. 그들은 생을 마감한 마지막 장소와 그 시간을 알고 있었다. 서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그들은 에기와 함께 기지를 초연히 떠났다. 오늘 그들의 위패는 야스쿠니 신사에 있으며 애국적 군인의 표상에도 군신이 되어 있다.

일본 전투 조종사가 쓴 태평양 공중 전투기라는 책의 에필로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종사들의 애국심을 묘사하면서 당시 상황을 술회하고 있었다.

會 費 및 贊 助 金

기별분담금(9차)

2001. 12. 25. 기준

期數	7次年度 (’99. 7. 1. ~ ’00. 6. 30.)			8次年度 (’00. 7. 1. ~ ’01. 6. 30.)			9次年度 (’01. 7. 1. ~ ’02. 6. 30.)		
	計 劃	納 付	未 納	計 劃	納 付	未 納	計 劃	納 付	備 考
1	40	40	-	40	40	-			
2	40	40	-	40	40	-	40	40	
3	40	40	-	40	40	-	40	40	
4	40	40	-	40	40	-	40	40	
5	40	40	-	40	40	-	40	40	
6	40	40	-	40	40	-	40	40	
7	60	60	-	40	40	-	40	40	
8	60	60	-	60	60	-	40	40	
9	60	60	-	60	60	-	60	60	
10	60	60	-	60	60	-	60	60	
11	60	60	-	60	60	-	60	60	
12	60	60	-	60	60	-	60	60	
13	60	60	-	60	60	-	60	60	
14	60	60	-	60	60	-	60	60	
15	60	60	-	60	60	-	60	60	
16	60	60	-	60	60	-	60	60	
17	60	50	10	60	0	60	60	130	7, 8, 9차
18	60	60	-	60	20	40	60	100	8, 9차
19	60	60	-	60	60	-	60	60	
20	60	0	60	60	0	60	60	60	
21	60	0	60	60	0	60	60	60	9차
22	60	0	60	60	0	60	60	60	
23	60	0	60	60	0	60	60	60	
24	60	0	60	60	0	60	60	60	
25	60	0	60	60	0	60	60	120	7, 8차
26	60	0	60	60	0	60	60	60	
27				60	60	-	60	60	8차
28				60	0	60	60	60	
29							60	60	
計	1,440	1,010	430	1,540	960	580	1,540	1,410	

회 비 납 입 안 내

회원회비 : 기본회비/평생회비
· 10만원(1회 납입으로 종료)

기별분담금(임원회비)
- 회기(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 2기~ 8기 : 기별 40만원
· 9기~29기 : 기별 60만원

찬조금/광고협조
· 누구나 찬조 및 광고

안 내
· 한빛은행 : 319-106231-02-301
(예금주 : 이재철, 공사총동창회)

송금시 유의사항
· 입금시 기수, 성명, 납입구분(평생회비/기별/임원회비, 기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Tel : 02-823-1091,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58-1
HomePage : www.afa.ac.kr, E-Mail : airfa04@hanmir.com)

3사체전 贊助金(各 期生會)

各 期生會에서 3사체전을 위해 직접 母校에 贊助金を 지원한 것과 총동창회를 통해 傳達한 內容입니다.

단위 : 만원

기 수	금 액	비 고	기 수	금 액	비 고
1기	50	홍우회	19기	300	태성회
2기	100	이공회	20기	100	청의회
3기	100	삼정회	21기	100	여명회
4기	100	사봉회	21기	100	배창식
4기	100	익명	22기	100	총매회
4기	100	익명	23기	100	송매회
5기	50	신성회	24기	100	웅매회
6기	100	일성회	25기	100	휘운회
7기	100	철성회	27기	100	석로회
8기	100	팔진회	28기	100	애채회
9기	100	은하회	29기	200	휘조회
9기	300	김삼태	30기	100	창로회
10기	100	심철회	31기	100	한돌회
11기	100	비성회	32기	100	벽곡회
12기	100	은성회	33기	100	비호회
15기	100	성익회	34기	100	한울회
16기	100	승운회	36기	100	한열회
16기	30	이재기	38기	150	침송회
17기	100	봉우회	39기	100	까치놀
18기	100	흑매회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평생회비
· 9차년도 납부(81명) 810만원

○ 찬 조
· 공군참모총장(대장 이억수) 200만원
· 박상준(공사 2기) 10만원
· 김진섭(공사 3기) 5만원
· 임광규(공사 15기) 10만원
· 백은호(공사 24기) 10만원
· 9기 사관 3,590만원

회 장	김민수	500만원	한광희	200만원
부 회 장	김상태	500만원	이기봉	50만원
감 사	정원호	100만원		
사무총장	이재철	100만원		
이 사	김광순	500만원	고인규	100만원
	권역달	100만원	김명수	100만원
	박충권	100만원	백봉중	100만원
	서철수	100만원	신도범	100만원
	이강홍	100만원	이영락	100만원
	이준오	100만원	임병선	100만원
	최인영	100만원		
회 원	고은택	50만원	김광연	50만원
	민대식	50만원	문영복	20만원
	윤성진	50만원	이경한	20만원
	이용세	50만원	이한호	30만원
	조희연	20만원	채기권	30만원
	전왕봉	50만원	함종우	20만원

(9면에서 이음)

전쟁이 끝나자 반전론자와 평화 주의인체 하는 사람들, 일부 일본 사람들까지도 가미가게 특공대야말로 일본 군국주의의 희생이며 비인간적 지시와 강압에 못 이겨 그들은 꽃다운 젊은 나이에 죽어 갔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죽어 가지 않았다. 어쩌다 나는 그들과 함께 죽어 가지 못하고 살아 남아 산자로서 증언컨대 그들은 어느 누구의 강압이나 떠밀림에 죽어간 영혼이 아니다. 風前燈火 같은 조국을 위하여, 내 어머니를 위하여 내 누이를 위하여 하며 그들은 기개가 산화해 갔다. 대부분이 나라를

위해 그렇게 죽어 갔거늘 비록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전체를 미화시킬 수 있는 것을, 결코 그들의 고귀한 애국심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나라를 위하여 죽어간 그 영혼을 욕되게 해서도 안될 것이다 라고 글 끝을 맺었다.
우리에게도 6·25전쟁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태양처럼 뜨거운 애국심을 길러온 전투 조종사들이 있다. 그들은 긴 활주로를 생명선으로 하여 전투기와 함께 기지 내에서 출동명령을 기다리며 하늘을 날고 있다. 누가 그들의 진실을 아는가. 누가 그들의 사랑을 아는가. 누가 그들의 고독을 아는가. 나는 느끼노라 이 빠른 음속

에서 너의 신념을, 이 높은 고도에서 너의 의지를, 그리고 너의 빛나는 눈동자에서 깊은 애수를, 나는 헤아리노라 너의 목덜미 붉디 붉은 빛깔에서 피보다 진한 망향을, 태양보다 뜨거운 정열을 그래서 너를 빨간마후라라 이름했다.
이 글귀는 음속 3의 속도로 5만 피드의 고도를 날며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는 전투 조종사들을 위해 마쳐진 獻詩 "보새"의 한 구절이다. 오늘도 그들은 그 언제쯤 두만강을 따라 북만주 건너보며 새벽하늘의 哨戒飛行을 할까 통일을 염원하며 대한민국의 하늘을 날고 있다.
이름하여 전쟁사에 남겨진 전투

조종사의 대명사 에이스(Ace), 그 영웅적 대명사의 성취는 수많은 전투 조종사들이 도전해 왔지만 그 성취는 결코 쉽지 않았다. 애국심을 가지고 끊임 없는 自己鍛冶에서만 이 성취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전투 조종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그 성취를 위하여 성원을 보내자. 꽃날 그들과, 그들과 함께 해 온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국립묘지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어 무명 용사의 묘비나 다름 바 없지만 잠차 전투 조종사들의 묘역이라 이름하여 마련된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또 하나의 애국심의 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다.

平生會費 納付者 名單('01. 12. 25. 기준)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	납 부 자 명 단
1	36	36	100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80	80	100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83	54	65	고승만, 고재원, 공시언, 김경복, 김규홍, 김동호, 김병기, 김상용, 김성하, 김인기, 김진섭, 김진환, 박석현, 박영호, 박영주, 백낙승, 박정석, 손철영, 심장섭, 소명욱, 손호인, 양혁제, 엄용식, 윤경환, 윤배욱, 윤봉섭, 이경영, 이만섭, 이명완, 이상운, 이상복, 이원재, 이인영, 이종학, 이필환, 이학수, 이영복, 장동준, 전복규, 전승우, 정규역, 정진섭, 정홍식, 조백현, 조병현, 조소하, 지경근, 최동호, 최환기 * 김상협, 김종훈, 이현동, 정합채, 홍천희
4	66	44	67	구자춘, 김석용, 김용중, 김환중, 박승준, 박예제, 박오화, 박용진, 박재진, 박차식, 서동렬, 신동만, 안우일, 양승문, 오수근, 유동찬, 이래식, 이순규, 이시우, 이조한, 장남춘, 장무의, 정구원, 정낙영, 정봉규, 정봉환, 정안봉, 정진모, 조경태, 조봉규, 조육찬, 최세찬, 최준식, 한영규, 홍사학, 홍의태, 홍재환, 황규복 * 김재운, 박병순, 박전하, 유낙영, 임병열, 정연국
5	102	62	61	김원신, 고경달, 고은인, 김종인, 김상곤, 김신근, 김성일, 김유범, 김유배, 김희년, 김희규, 나병순, 문창수, 박병규, 박석환, 박성환, 박용직, 박용태, 박종희, 박종식, 박항배, 배경태, 백수연, 성보경, 손경희, 손민희, 신봉림, 손정희, 송승근, 안석기, 양영직, 여태현, 유철중, 윤준현, 이종식, 이병직, 이수전, 이운모, 이원순, 이원천, 이준수, 이준일, 임종배, 임락용, 장기현, 장재명, 전운수, 정병주, 정봉수, 정순갑, 정재식, 차순도, 최찬정, 최홍선, 한정근, 한필순, 함대상, 허광선, 황교찬 * 김상락, 이재우, 이창호
6	46	48	104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58	62	107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53	53	100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	43	46	106	* 계영석, 김광현, 김용한, 김종희, 윤성진, 이경한, 임병배, 조희열
10	49	44	90	강위훈, 권영락, 김광영, 김병태, 김상해, 김순호, 김시호, 김완수, 김운재, 김문주, 김종선, 김재달, 김태석, 김한용, 김홍래, 문성근, 박근업, 박복찬, 백대선, 백승웅, 서진규, 신종재, 성수환, 송중우, 송창수, 이강주, 이달화, 이두훈, 이병태, 이병중, 이수갑, 이수길, 이영우, 이은봉, 이창호, 이재병, 이현재, 임승욱, 장종길, 최원철, 한정부, 홍동식, 홍성우, 황복석
11	48	52	108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	42	35	83	강영식, 김규필, 김문수, 김영식, 김영웅, 김원인, 김태규, 나광수, 남현영, 민항식, 박덕희, 박상철, 박원규, 박창길, 박춘택, 배기춘, 배양일, 백광현, 신동훈, 심재운, 안봉열, 우대석, 우정수, 이명환, 이상경, 이상순, 이종득, 이종양, 이홍우, 전대우, 정만남, 정관중, 최대식, 홍종건 * 김부수
13	50	39	70	권희분, 강신태, 고명준, 곽갑순, 김양수, 김영부, 김종식, 김진삼, 김진석, 김준연, 문기철, 민양식, 손덕규, 안병하, 안병철, 유근우, 유병각, 윤재명, 이기연, 이병길, 이승대, 이정호, 이종대, 이종화, 이태규, 이희관, 장덕수, 정해성, 지창수, 조건환, 최길용, 최영덕, 최인일, 최종덕, 태종민 * 김무신, 이강평, 이승배, 이완규
14	53	50	100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	50	29	58	권기동, 김태욱, 김덕훈, 김석호, 김성덕, 김주식, 김광람, 명정수, 박득규, 박영남, 박오상, 박종길, 배양웅, 손영철, 신길수, 안위공, 양승록, 엄익준, 오상현, 이강섭, 이길환, 이호제, 임용원, 조국현, 최광섭, 최성렬, 최용환 * 임영규, 최광순
16	52	31	60	강철수, 김문기, 김성구, 김신홍, 김의림, 김정갑, 김종환, 김현석, 박성국, 박경용, 박영훈, 배정영, 백동기, 서요창, 오창모, 이선기, 이성우, 이수용, 이재기, 장진수, 임정빈, 전광남, 정해창, 주창성, 최동철, 최병삼, 최양용 * 김정욱, 김희동, 박영기, 이상렬
17	60	35	58	강희간, 고영식, 고종무, 김상재, 김석우, 김문태, 김용수, 김이창, 김재현, 김준수, 박용택, 배종수, 서정운, 안광수, 어수연, 유성열, 유정용, 윤병인, 이규대, 이문호, 이성욱, 이한호, 이철희, 전영배, 장삼용, 장호근, 조규식, 차욱환, 한영택, 황창번 * 김문수, 김용수, 송대성, 이윤대
18	64	41	64	곽조휘, 강제필, 고정훈, 구세환, 구정희, 곽은용, 김두연, 김성진, 김종식, 김제수, 김재운, 김진철, 김태곤, 김현규, 류효열, 신병호, 석현수, 손인익, 송희진, 신표근, 엄이웅, 오병환, 오환근, 윤관중, 이기택, 이봉길, 이선희, 이영준, 이정욱, 이진학, 이태섭, 이하진, 장영수, 전영훈, 정원태, 최석삼, 최태호, 천기광, 허 한 * 박경집, 선치수
19	73	30	41	김덕실, 김병림, 김영철, 김정진, 박 열, 서경수, 손영수, 손정환, 유병규, 유병권, 윤정재, 이규신, 이강욱, 이계우, 이규찬, 이달호, 이성용, 이영순, 이인영, 정성진, 조명래, 지광식, 하석태 * 유승렬, 이승호, 이종관, 임종태, 장희천, 정화섭, 홍강표
20	94	17	18	김오비, 김우식, 김정기, 손준영, 이정학, 이영원, 장성문, 조태연, 차종민, 한광성, 한길성, 허원욱 * 김성일, 이영희, 박 영, 최삼용, 홍삼열
21	97	20	21	강남식, 금기연, 금영수, 김상인, 김영배, 김영화, 김태욱, 명철원, 박경성, 성봉환, 송동근, 이수남, 정운용, 조오연, 홍종백 * 권 근, 배민섭, 배창식, 이광영, 한홍섭
22	103	17	17	김수준, 김은기, 남백우, 손종열, 윤성기, 윤여동, 이광희, 이경환, 이영하, 이용익, 이정석, 장현섭, 홍재근, 최병운, 최승열 * 강희찬, 송인선
23	109	12	11	김수환, 이은수, 윤차영, 박종철, 장석원, 정경모 * 구본담, 이계윤, 이영덕, 정규덕, 정대주, 하창호
24	130	16	12	공윤식, 신진섭, 송기백, 안창수, 안빈용, 엄경식, 이필중, 이영중, 이재강, 전남채, 정필호, 주신호, 최홍용 * 박준홍, 백운호, 정성화
25	124	18	15	구도권, 김진태, 김중용, 김정렬, 류종규, 박우성, 박준하, 손병환, 임우규, 윤양로, 윤용원, 이성재, 최승규 * 고덕천, 김귀희, 장희태, 홍건표
26	123	6	5	박인규, 변종돈, 최병학 * 송길수, 윤덕중, 최지수
27	125	9	7	고덕규, 김만호, 김용상, 남은우, 박찬권, 손태용, 최동환, 홍성은 * 한병국
28	122	2	2	신영덕, 최상일
29	141	29	21	김경호, 김석중, 김성전, 김영권, 김영철, 김원규, 김철생, 나홍렬, 박성기, 백승욱, 송창석, 심동환, 심재광, 오승근, 오영봉, 오한두, 윤주영, 이규복, 이병부, 이완식, 이일수, 이장근, 정남범, 최상철, 최승철, 홍상기, 홍승조, 홍재욱 * 한봉규
30	151	6	4	강성호, 김원규, 김용환, 김진완, 장덕진, 채종복
31	166	1	1	조환기
32	168	0		
33	173	3	2	유준중, 이재흥, 정회주
34	167	4	2	안상철, 정찬영 * 김수봉, 정삼길
35	252	1		* 서완석
36	256	3	1	김응문, 박홍식 * 박종국
37	252	0		
38	232	0		
39	222	1		* 최성모
40	243	0		
41	242	1		김민호
42	277	0		
43	271	0		
44	211	4	2	고준기, 권기범, 박세순, 이강희
45	211	0		
46	230	0		
47	201	0		
48	193	103	53	강규영, 고관진, 고종진, 구민규, 구본곤, 구필현, 금규태, 김태원, 김강주, 김경민, 김년수, 김덕중, 김만중, 김민진, 김병준, 김상준, 김신규, 김성진, 김승연, 김시문, 김인영, 김용숙, 김우연, 김재훈, 김주배, 김창민, 김철환, 김태오, 김홍석, 나경훈, 남태수, 문보문, 민병역, 박경준, 박정수, 박종영, 박찬역, 박한민, 박희수, 사재철, 소명섭, 손성진, 송영권, 송영민, 신 환, 신기영, 안상철, 안효운, 양현주, 엄일용, 오상원, 원용창, 유 흥, 윤경식, 이광일, 이규동, 이기영, 이대연, 이득수, 이동훈, 이병선, 이무강, 이상준, 이석현, 이순재, 이우열, 이윤진, 이인호, 이정원, 이정훈, 이종원, 이종훈, 이찬용, 이창준, 이태승, 이형주, 이효성, 임병철, 임병호, 임수홍, 임은수, 임창순, 장근홍, 장성진, 전대만, 정기만, 정인식, 정재훈, 조정훈, 조혁준, 채 석, 천영호, 최권석, 최규완, 최성호, 최성호, 최영기, 최재로, 우광로, 한영중, 허석희, 홍문기
49	199	0		
미상	1			'01년 2월 20일에 지로용지 납입하신 분 중 성명 미기재(연락바랍니다.)
합	6,596	1,145	17	

- * 9차년도 납부자('01. 7. 1. ~ 12. 25.)
- 23호 회보 정정내용
· 21기 윤성기를 22기로 정정
· 18기 최석삼 이종기제로 하나 삭제

가장
검증된

가장
뛰어난

가장
발전된

F-15K는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F-15 기종 중 가장 앞선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F-15K는 360도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대의 항속거리와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춘 유일한 전투기입니다. 美 공군과 보잉사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는 F-15K와 한국이 만난다면, 양측의 파트너십이 제공하는 기술이전 및 고용창출 등으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F-15K야말로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전투기' 라는 사실입니다.

 **BOEING**
Forever New Frontiers